

미술관에서 만난 101가지 인간 이야기



새로고침-서양미술사(전 3권)

이진숙 지음

‘드디어’ 완간됐다. 르네상스 미술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서양미술사(史)를 ‘시대와 인간’이라는 테마로 풀어낸 이진숙의 ‘새로고침-서양미술사’(전 3권)가 6년여의 집필 기간을 거쳐 마무리됐다.

14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은 역사와 미술을 접목한 베스트셀러 ‘시대를 흥친 미술’, 문학과 미술이 어우러진 ‘롤리타는 없다 1·2’를 펴낸 이진숙의 진가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10년간 매월 200명 이상이 수강한 서울 예술의전당 강좌 ‘미술사를 바꾼 101인의 예술가’의 강연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은 세상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 ‘101가지 인간 이야기’를 풀어냈다.

가벼운 감상과 에피소드 위주의 미술 관련 저작들이 쏟아지는 요즘, 풍부한 학구적 지식과 통찰력 있는 시선, 생생한 현장감, 편하게 읽히는 글쓰기 등이 어우러진 책은 근사한 ‘서양미술사’의 출현을 알린다.

1권 ‘인간다움의 순간들: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와 2권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라파엘전부터 추상미술까지’는 각각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나왔고 마지막 3권 ‘치유와 연결의 순간들:초현실주의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가 이번에 출간됐다. 당초 ‘더 클래식 101’로 기획된 책은 완간 후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을 새롭게 달았다. 기존 서양미술사를 나름의 관점에서 새롭게 써본다는 의미와 미술사를 새롭게 고친 예술가들을 소개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술의 역사는 “예술가들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미학 속에서 인간의 풍부함을 드러낸 것”이다. 때론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인간들이지만 불안정함을 자각했기에 역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술가들이 포착한 그림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압축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저자는 특정 사조의 대표작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주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덜 알려진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현대미술을 다룬 3권 ‘치유와 연결의 순간들’에는 해체와 전복을 넘어 새로운 연결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은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사진과 회화의 미묘한 줄타기에서 탄생한 리히터의 ‘베티’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인물화가 매력적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때론 통속적이고 상업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제프 쿤스의 작품들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전하는 듯하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리아 레핀의 작품 ‘1581년 11월16일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은 화가가 아만의 시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고, 평생 우울을 안고 살았던 몽크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는 화려한 고흐의 동명의 작품과 비교하면 ‘겨우’ 빛나는 별이 작가의 고통을 대변한다.

시리즈의 첫 작품은 인간이 통곡하며 낙원에서 추방되는 장면을 담은 마사초의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이며 마지막 작품은 요시모토 나라의 ‘미스 포레스트’와 표지화로도 쓰인 ‘착한 새끼 고양이’다.

101명의 작가를 소개하는 글 말미에는 언급된 그림



게르하르트 리히터 작 ‘베티’ <둘베게 제공>

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세 권을 함께 묶은 세트는 구입하면 실용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별책부록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미술관 탐방 가이드101’을 제공한다.

한편 이 책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 클래식 음악 전문가이자 문학수가 쓴 ‘더 클래식 101’(3권)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같은 출판사에서 역시 3권으로 출간된 책은 클래식과 친해지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길라잡이다.

<둘베게·각 권 3만 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재미가 습관 되는 법(마이크 러커 지음, 김재경 옮김)=성공지상주의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불안을 마주한다. 그런 성과의 압박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요소는 다름 아닌 ‘재미’다. 막연한 행복이나 쾌락 대신 재미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의 쳇바퀴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고단함을 줄이는 ‘시간 활용과 PLAY모델’ 등 다양한 프레임 설정을 통해, 재미 요소를 습관으로 바꿔 낸다. <청림출판·2만2000원>

▲철학은 왜 전쟁을 부정하는가(군나스 힌드리히스 지음, 이승희 옮김)=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세계, 그러나 철학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한 걸음 물러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군사 폭력이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 철학이 왜 전쟁을 부정하는지, 법과 제도, 종교 등 사회 전 분야 요소들이 어떻게 전쟁과 연관성을 갖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반군사주의로 귀결되는 사유를 도출하면서 전쟁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두리번·1만7000원>

▲정신과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전현수 지음)=불교정신치료의 장을 연 저자가 40년간 수행했던 경험을 담았다. 4년째 수행법과 초기불교 핵심 교리, 윤회와 업의 원리 등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어떤 가르침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했던 부처의 가르침은 종파를 초월해 보편적 의미가 있다. 삶



이 곧 실천 철학과 의지 속에서 진리로 환원한다는 말씀 또한 오늘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준다. <불광출판사·3만원>

▲과학 용어의 탄생(김성근 지음)=일에서 과학은 분과와 학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의 과학은 물리학과 기술, 철학과 자연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확장됐다. 기술과 과학이 어떻게 만났으며 동아시아의 ‘도리나 이지’ 용어가 어떻게 전대미문 개념으로 커졌는지 살펴본다. 니시야마의 ‘백학연환’과 ‘격물학’, 시즈키 다다오의 ‘속자’와 ‘진공’과 같은 과학 초기 개념들을 고찰하고, 이들이 현대적 의미를 획득한 과정을 차례로 분석한다. <동아시아·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원소의 구조(구리야마 야스나오 감수, 이정현 옮김)=주기율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원소를 가장 많이 발견한 사람인 뉴런지, 사진으로 본 원소의 모습은 어떤지 등을 알려준다.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주기율표에 나열되는 공통점이 있는지, 원소를 가열할 때 발하는 불꽃색의 정체와 인공 원소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시그마북스·1만7000원>

▲안개 너머 신기한 마을(가시와바 사치오 지음, 고향옥 옮김)=주인공 리나는 아버지 권유로 여름방학 동안 안개 골짜기에서 지내게 됐다. 아빠가 건넨 피에로 우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을에 도착

한 뒤 할머니의 저택에 머무르지만, 스스로 일해 번 돈으로 하숙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마을 내 책방, 도자기 가게 등에서 차례로 일하기 시작한다. <한빛에듀·1만4000원>

▲조그만 새싹(브리타 테켄트립 지음, 김서정 옮김)=봄이 찾아오자 새싹들이 땅 위로 고개를 내민다. 그런데 조그만 씨앗 하나는 여전히 땅 밑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씨앗이 트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워 성장하기 적합한 환경 뿐이다. 새싹 하나가 어떻게 해야 햇빛을 듬뿍 받고 튼튼한 식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주니어RHK·1만5000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

문화유산과 국제개발협력

금기형 외 지음



지난 1960년 이집트 정부는 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국의 대형 댐 건설에 따라 고대 이집트 누비아 지역의 아부심벨(Abu Simbel) 신전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네스코는 프로젝트를 공모해 기발한 대안을 찾았다. 이후 신전은 10여 년 동안 3단계에 걸쳐 1600여 조각으로 해체돼 원래 장소에서 65m 위쪽으로 이전·재건축됐다. 50개국에서 파견된 15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한국 50만 달러 등 총 4200만 달러가 투입됐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된 새 신전은 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원

조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세계의 유산은 인류공동의 것이며, 그 보존 책임 또한 인류 모두에 있다’라는 세계유산 협약(1972년)을 선언했다.

신간 ‘문화유산과 국제개발협력’은 문화유산 공적개발 원조(ODA)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6명의 국내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 목소리를 담았다. 모두 6개 장으로 나눠 문화유산과 ODA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정,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과 그에 따른 국제원조 제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세계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원국(受援國)’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供與國)’으로 바뀌었다. 장지승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한국은) 식민지배 경험, 내전, ODA 수원국을 모두 경험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ODA 공여국’이라며 한국의 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지원사업 사례를 들려준다.

금기형 (사)문화유산창의공간 대표는 “문화유산 ODA 사업은 도시화·산업화·기후변화로 인해 망실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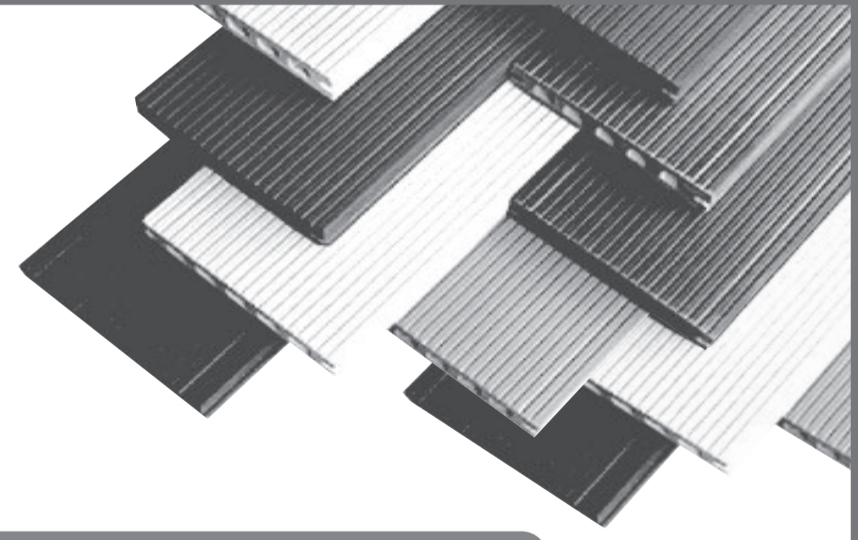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협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콘텐츠 사업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회복력’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문화유산 ODA는 2013년 라오스 왓푸 유적 흥남시다 사원 보존복원사업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고 한다. 저자들은 캄보디아 프레이피트 사원 복원사업과 미얀마 문화역량 강화지원사업,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유산 ODA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미얀마, 라오스, 키르기스스탄과 협력해 문화자원 DB를 구축하는 디지털 큐레이팅 ODA 사업을 진행했다. ‘(가칭)문화유산 공적개발 원조 협의회’ 설립과 광주·전남 문화예술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의 문화유산 ODA 사업에 대한 저자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눈길을 끈다. <학교재·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